

그물코 예술

유비호展 8. 7~30 대안공간루프

조소희展 8. 13~10. 10 아트센터예술의시간

유비호의 <미제>는 여러 단서로 직조한 사건의 그물코다. 일반적으로 작가가 던진 수천수만의 그물코에 관객이 걸려들어서 미술의 환(幻: 환영의 리얼리티)과 감응하는데, 이 전시는 관객을 환의 실체로 둔갑시켜서 사건을 해결하도록 이끄는 모양새다. 사건은 하나가 아니어서 전시장 초입부터 난항이다. 자칫 전시는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관객은 구경꾼이 아니라 탐문하는 조사자가 되어야 할 터!

자본이라는 유령

검은 소파에 앉아 묵묵히 지켜본 <무현금_날숨>과 <무현금_에로스>는 프로젝트 기획전 <2015 무현금(無絃琴)>으로 거슬러 오른다. 기획자 손진우는 그의 작업이 치열한 노동의 반복 행위를 수행자의 태도로 읽고 기록한 영상이며, 노동의 감성적 태도를 관찰하도록 만드는 '환영의 여운'을 가졌다고 했다. 두 작품의 열쇳말은 '날숨'과 '에로스'이고 그것들의 세목은 노동, 행위, 수행, 태도, 환영일 것이다. 그런데 들숨이 없는 날숨이고, 카뮈가 1942년에 발표한 『이방인』의 부조리한 주인공 뫼르소를 패러디한 듯한 에로스다(그는 노동하는 개인을 뫼르소의 비극에 비유했다). 짝이 맞지 않는다.

무언가 기우뚱거린다. 작가는 두 영상이 생존과 평안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자 번뇌의 과정이며,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을 노동으로 교환한 자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심미와 감성의 세계가 펼쳐지는 기이한 '심리적 환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스스로 변화시키는 미시적 대사건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환'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철을 다루는 장인에게서 대장장이 샤면을 호출하지 않더라도 소파에서 일어설 때는 그러므로 환의 주인공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거듭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도깨비술수라도 부려서 말이다. 그래야만 그가 구축한 이 '심리적 환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길목, 건축 자재 비계에 매달려서 발광하는 엑스엑스(XX)와 세 개의 빛을 본다. 불현듯 여성은 X염색체가 2개라는 생각이 들고, 삼위와 삼신과 삼극의 신성(神性)이 환하다는 느낌이 든다. '얼빛'이 솟는 장면인데, 사실 터무니없는 상상이다. 그런데도 둔갑의 실체는 '여성성'에 있고,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성과 합리성 따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확신이 파고든다. 그가 예지한 것처럼 이곳에서 새롭고 낯선 상상이 배양되고 성장하고 증식될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되었기 때문일까? '나'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닌 듯했다.

미제는 '미완'이란 뜻이다. 또 그 말은 '미해결'이니 '아직 해결되지/해결하지 못한 사건'이겠다. 전시 기간 내내 코로나는 미해결이었고 심지어 2차 대유행의 우울한 전망이 타전되는 상황이었다. <미제>는 미완인 채로 시작되었고 미해결의 어떤 사건들이 퍼포먼스로 펼쳐졌다. 크리에이터들이 펼치는 '(미학적) 사건'은 스스로 당기고 밀어내는 '홀로'의 언어로 그곳에 쌓였다. 비대면으로 펼친 퍼포먼스는 페이스북 따위로 가닿을 수 없는 몸짓과 소리와 의미들로 뜨거웠는데, 갇힌 세계와 열린 세계 사이에서 그 현장은 뚜렷했다. 언택트가 콘택트로 확산할 때 비현실 같았던 그 순간들이 일시적으로 미제 사건에서 풀려나는 듯했다. 작가는 그렇게 풀린 사건과 상황으로 파고들었다. 그것들이 빚어내는 현실/비현실의 구조를 비스듬히 응시했다. 구조는 비계와 오로라 필름으로 짠 얼개였다. '나'는 오로라의 이쪽과 저쪽을 거닐면서 홀로, 혹은 서로를 질문하고 답을 구했다. 질문과 답은 그가 화두로 던진 타이어에서 발화했다. 질주하는 자본의 바뀌는 크리에이터들의 난장을 통해 완전히 다른 상상으로 옮겨붙었는데, 노동과 자본을 오갔던 스트레스가 예술적 환영을 입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환의 퍼포먼스를 목격하는 유일한 주체는 <썬# 2017년 12월 4일 아키알라 해변>이었다. 퍼포먼스가 펼쳐질 때 영상은 퍼포머와 마주했다. 2015년

조소희 <편지-인생작업>
스테인리스 스틸 각봉, 유리,
<편지> 10,000장 외 혼합재료
가변크기 214×201×39cm
2007~20_조소희가 개인전
<시간을 은유하는 작업>에서
처음 공개한 <편지-인생작업>은
프랑스 유학 중이던
2007년부터 매일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타이핑한 편지
아카이브다.



유비호 <미제>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0_유비호 개인전
<미제>는 이분법적 질서가
만연한 사회를 비판한다. 주역의
64괘 중 마지막 괘를 차용해
만든 건축물로 미완의 긍정적
가능성을 상상했다.

9월 2일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터키 남부의 아키알라 해변에서 발견되었다. 유비호는 그 해변을 찾아가 영상에 담았다. 파도와 모래톱과 나무와 싸늘하게 죽어서 말라버린 개의 이미지가 영상을 떠돈다. 전시의 구조는 비현실이면서 사건의 현실이었다. 나날이 쌓인 사건으로 전시는 또한 진창이었는데 불행히도 현실이 되지 못했다. 그 모든 사건과 현실의 이면에서 헛보이는 어떤 유형의 환이 어슬렁거렸다. 그 실체는 노동이거나 자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도시의 폐허라는 생각도 들었다.

시간의 그물

시간이 떼로 몰려왔다. 아트센터예술의시간 2층과 4층. 아래위로 세 번을 오르내렸다. 전시를 타는 몸의 감각이 부지런히 널뛰었으나, 쉽게 열리지 않았다. 시간을 입고 벗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오래된 처음'이 공간의 성격이었는데, 조소희는 그 공간을 채워서 '시간의 사원'으로 빚어놓았다. 시간은 그곳에서 글의 무늬로 새겨졌고 물비늘 같은 말의 잔물결이 곳곳에서 일렁거렸다. 다석 류영모는 얇은 것 중에 얇은 것이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곳의 시간들은 켜켜이 엮드려서 자라는 찰나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 얇은 찰나를 간신히 붙잡고 4층에 놓인 <편지-인생작업> 앞에 섰다. 휘청거리듯 기울어서 겨우 서 있는 1만 장의 편지는 그러나 견고했다. 사원은 1만 장의 하루하루가 뿜어내는 시간의 무게로 장엄했다. 그 장엄으로 공기는 승엄했다. 그 사원의 열주는 보드리야르가 말한 "시적인 언어가 주는 강렬한 쾌감은 언어가 그 물질성, 글자 그대로의 해석에서 의미를 통과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기능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때는 차고 이르고 가고 오듯이, 작품은 시간이 공간을 휘감고 돌면서 차오르는 양상이었다. 보이지 않는 씨줄 날줄이 그물코를 지어서 시공의 숨구멍을 틔우는 순간이라고 할까. 뒤로 돌아서니, 텅 빈 사원에 앉아 타자를 치는 그가 얼비쳤다. 환이었다.

내가 하는 일, 예술의 시간. 책상 위 편지에 박힌 두 토막의 글. 그리고 직조되는 시간 ... 시간의 영적인 측면, 시간의 무거움, 무한의 시간, 시간을 알고자 하는 욕망 ... 투명하지만 무거운 시간 ... 시간의 실체,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간, 실의 가벼움, 시간에 대한 무지 ... 소멸을 기다리는 시간, 시간을 사유하는 이유 ... 시간의 구멍과 무한, 시간을 은유하는 작품 제목, 모름에 도달하기 위하여 ... 시간의 부스러기 ... 실의 시간 ... 시간에 대한 만 가지 생각..... 타자기로 타이핑한 편지의

일부다. <편지-인생작업>의 맞은편 벽에 붙은 48개 편지 속 48편의 짧은 구절들을 나지막이, 그러나 또박또박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서서히 증식하는 시간"에 다다라서 불현듯 전시 제목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진심을 다해서 시간을 은유하는 작품 제목을 짓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잘게 나누어 조금씩 토막토막 어떤 구절들을 떠올린 뒤, '쓰기'로 태어나는 글을 시간으로 타이핑해서 '비움'을 채우는 말들의 제목을. 그의 글쓰기는, 아니 편지는 자기를 세계로 밀어낸 빈자리에 세우는 시간의 깃대요, 깃발이었다. 그 깃대와 깃발에서 말의 흰 꼬리가, 글의 흰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아주 얇게 가볍게 투명하게 누빈 편지의 흰, 치밀하고 빈틈없이, 비약이나 단절 없이, 풍부한 상징으로 펜 비단실의 편지에서 흰 그늘이 넓게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을 사유하는 하나의 경전이였다.

씨줄은 가로 실, 날줄은 세로 실이다. 씨줄 날줄로 엮은 것이 그물이다. 경전(經典)의 '경'도 줄이란 뜻이다. 그 줄로 지은 성스러운 말의 집이 곧 경전이다. 그것은 기도문이기도 했다. 경전을 이루는 말이 그물이라면 말의 뜻은 그물코다. 그물코는 말집에 뚫린 창문이어서 그곳에서는 온갖 의미가 샘솟는다. 사람이 참나(眞我)로 새로 솟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숨-줄'을 잡아야 한다. 조소희의 실은 하나의 경이다. 씨줄 날줄이 다 있다. 그는 두 줄의 오라기로 빚어내는 그물을 오래 궁리했다. <...where...>는 거대한 경의 실체이며, 인간의 이기적 자아가 본래적 자아인 참나로 샘솟는 우주 그물코의 현현이었다. 실은 본래 두 가닥 세 가닥의 가느다란 숨을 물레로 돌려 한 꼬임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다. 나선형으로 꼬인 음양의 회오리이다. 꼬이고 엮여서 탄생한 실의 쓸모는 생명을 보듬는 모심에 있었다. 그는 그 모심의 수행으로 거대한 빈탕(空白/太虛)을 지었다. 그의 빈탕은 이 숨 저 숨 수천수만의 온 숨으로 가득해서 오롯이 숨의 무게로만 조화를 이룬 '얼숨'의 본성을 보여준다. 하늘마음의 싱싱한 씨알이 본성이니 그의 그물은 또한 우주 숨의 숨결로 짠 그물코일 터이다.

그는 또 씨줄의 빛줄기, 날실의 빛줄기를 보여주었다. 헤아릴 수 없는 빛 그늘의 가닥들이다. 공간은 그 가닥의 장력이 펼치는 긴장으로 숨찼다. 실 하나하나의 숨이 빛으로 터질 때 바닥과 천장은(땅과 하늘은) 더 넓어지는 듯하다. 씨줄과 날줄의 빛 가닥이 카오스로 엮이면서 거대한 인드라의 하늘그물이 탄생했다. 하늘하늘 실이 출렁거리면서 속삭인다. "아, 이 또한 유쾌한 일이 아니냐!"

/ 김 종 길